

바로서는 학부모
우독서는 아이들

학부모신문

청주 0431-52-9541 부산 051-247-1795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마창 0551-45-0341 대구 053-741-7366
여수 0662-62-6541 익산 0653-834-0347
울산 0522-92-8053/4 여천 0662-84-5116

발행인: 오성숙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2-1(2층) 전화: 675-9068 634-6508 631-0976 천리안 · 나우누리 ID HAKBUMO (FAX: 634-4359)

공동체 의식과 자율성 키우는 '96 어린이 숲속학교

지부 임원 조직적인 활동 펼쳐야 대전에서 열린 임원연수



◇지난 숲속학교때 모듬활동을 하는 어린이들.

여름방학을 맞아 '96 어린이 숲속학교가 열린다.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군 서립 수련원에서 열리는 숲속학교는 두 가지의 목표 아래 준비되고 있다.

교실에서 정해진 과정만 교육해야 하는 틀을 벗어나 어린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드는 실험 학교와 환경 파괴의 현실에서 생태계 내의 존재 방법을 찾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친화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 행동,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듬을 짜고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 규약을 만들고 숲속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나무와 풀, 숲, 계곡의 생태계를 학습한다.

어린이 교육문화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여름 숲속학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지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놀이연구회 '놀이'가 함께 준비한다. <3면 참조>

참교육 학부모회 임원 연수가 지난 6월 8일, 9일 이틀 동안 대전에서 있었다. 이번 임원 연수는 서울, 부산, 인천지부 등 15개지부의 임원들이 모인 것으로 본회의 조직 발전을 위한 교육과 96년 중점 사업에 대한 활동 임원간의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준비된 자리였다. 8일 오후부터 시작된 임원 연수는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오성숙 전국 회장의 인사로 일정이 시작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한 송대현 (전교조 교원법규국장)의 강의와 이수일 선생님 (전교조 사무처장)씨의 조직론 강의를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

해서는 학부모의 올바른 인식과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의 활성화와 학교운영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 방청 운동을 전개할 것"을 송대현씨는 강조하였다.

다음날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부산지역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지부의 사업 못지않게 지역의 대소사에 인간적인 관계로 끈끈한 정을 쌓은 것이 연대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게 된 배경이 됐다"고 조명숙 지부장은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지부구성 준비를 위해 뜻을 밝힌 것이다.

학부모 신문 변화 전면 검토 인력과 재정부족 해결해야

출판국 주최로 학부모 신문 편집 강좌가 지난 5월에 있었다.

편집 강좌는 한국의 교육 현실과 학부모 운동(정진후, 전교조신문 편집실장), 신문 유형 결정과 편집(정종주, 시사평론 길 편집과장), 취재 활동 및 기사 작성(심복자, 노동자신문 편집인), 편집원 및 레이아웃(연혜배, 내일신문 편집국장), 가족신문 만들기(박정숙, 어린이 도서연구회 연구위원)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학부모 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신

문 독자의 대상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중심이었던 점, 월간이라서 나타나는 기사의 비신속성, 광고 선택의 제한, 미등록지가 안고 있는 광고 섭외의 어려움 등 인력과 재정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학부모 신문이 발전하기 위해 신문의 등록, 증면, 유가지로의 전환, 신문유형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원 논의를 거쳐 학부모 신문의 변화가 전면 검토될 예정이다.

'96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유작 !!!

파리, 동경을 거쳐 전세계에 순회 전시될 우리 그림책.

뉴욕에서 활동중인 일러스트레이터와 중국 연변에 사는 조선족 작가가 만나 이루어 놓은 감동의 드라마!

길/역/작/그림/야담/32권/대형판/8~13세/가격/7,000원



폭죽소리

"폭죽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일본제국주의시대, 중국 사람에게 팔려간 조선족 소녀의 슬픈 운명을 그렸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어른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이다." - 윤구병 (전 충북대 철학과 교수)

길벗어린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3-16 TEL.322-6012 독자상담 무료전화 080-023-7979 (친구연구)

아름드리 어린이 문학

이오덕 선생님이 우리 말로 다듬어 주시는 세계명작

세계명작도 우리말이 중요합니다.
딱딱한 글말과 어려운 한자어, 미국말법으로 가득한 글은
우리말을 배우고 익히는 어린이들에게 글맛, 명작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아름드리 어린이문학은 감동이 생생합니다.



- 대상연령 9~14세 가격/각권 4,000원
1. 작은 새와 천사의 이야기 (카렐 차페크 지음/채근)
 2. 돌리틀 선생 아프리카로 간다 (휴 로프팅 지음/미국)
 3. 곰돌이 푸우는 아무도 못 밀려 (앨런 밀론 지음/영국)
 4. 푸우야 그대도 나는 네가 좋아 (앨런 밀론 지음/영국)
 5. 돌리틀 선생의 바다여행 (휴 로프팅 지음/미국)

논 설

종합 생활기록부 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교과 총점 위주의 상대 평가인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채택한 종합 생활기록부(이하 종생부)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열부 학교에서 나타난 점수 올리기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일선 교고에 '종생부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시달하였다.

'균등 석차 백분율'로 이름 붙인 이 개선 방안은 한마디로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어 고득점자를 양산하더라도 석차 백분율은 무조건 균등한 숫자로 나누어 실적이 없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이 방안으로 일선 학교의 점수 올리기에는 상당한 제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같은 점수를 얻고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른 등급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원래 제도 도입의 취지인 학생 개개인의 자아 실현이라는 절대 평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종전의 15등급 평가보다 더 세분화된 100등급 상대 평가로 후퇴한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다.

따라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호하는 대학들로서는 예전보다 변별력이 훨씬 강해진 석차 백분율에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은 물론이요, 대학 입시를 향한 학생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단 말인가?

교육개혁에 거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은 무엇보다도 끝 모를 입시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현장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 이론만으로 무리수를 두어 실패한 일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그럴 때마다 일선의 지도 교사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모두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졸속한 제도 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점 때문에 어느덧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사라진 채 땀질식 대응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급기야는 또 다시 새로운 제도로 바뀌는 일이 예사였다.

종생부 제도가 표류하게 된 것도 제도 시행의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긍정성만 가지고 무리하게 제도 도입을 서두른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시험 문제를 쉽게 낸 학교장이나 교사를 무더기 징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이며, 또한 교사들의 교직 전문성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종생부 개혁안의 취지 자체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교육개혁은 결코 의지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가 없다. 그 의지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여건이 반드시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온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교육 투자,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부문이 좀 더디 가는 듯 보이더라도 오래지 않아 결국은 그 길이 지름길임이 입증되리라 믿는다.

종생부 제도 또한 그 바탕 위에서 시행되어야 우리의 고질적인 교육 병폐를 바로잡는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백년은 못 되어도 적어도 쉽게 바뀌지 않을 항구적인 입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단신◆

학교장, 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인천, 대전, 광주·전남, 경남 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장, 교사 초빙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용절차는 교장의 경우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임자 2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임명하여 4년 임기로 발령하며, 교사는 각 학교의 교사 정원 20% 범위내에서 4년간 임용할 수 있다.

중·고 성적관리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중·고교에서는 과목별로 전체 학생수 대비 1% 범위 안에서만 동일석차를 인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입시에서 타고 학생들보다 유리해지도록 문제를 쉽게 출제해 고득점 동점자 수를 양산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고교 학업성적 관리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학기부터 초·중 교내과외 전면시행

정부는 사교육비경감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탈선방지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학기부터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내과외를 전면 실시기로 했다.

과목은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회화, 컴퓨터, 태권도, 각종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토록 하고, 우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과목부터 개설토록 했다.

교육부, 내년 해외유학 전면 자유화

내년부터 해외유학이 전면 자유화된다. 해외유학 자유화 추진은 지난해 서울시내 중학생과 인문계 고교생 가운데 자퇴를 하고 유학을 떠난 학생이 1천2백55명(전년대비 53.4% 증가)에 이르는 등 초·중·고생의 변칙 유학이 급증하고 유학 관련 제한 규정이 세계화 시책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운영위 사업가, 30년 이상 교사 많아

학부모와 교사,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

역위원들 중에는 사업가가, 교사위원들 중에는 30년 이상 경력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고, 내년 3월 개교 예정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용산국제고가 국내 최초로 내년 3월 개교된다.

현 용산고를 개관, 다음달 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특별·일반전형 각 2백명씩 4백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환경 개선 특별예산 40% 낮잡

교육환경 개선 특별예산은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연간 1조원씩 총 5조원을 투입, 노후교실 등 학교 시설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6월말 현재 지원액의 40%가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못했거나 시·도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은행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 대폭 확충

교육부는 어린이들의 심신수련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린이 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해마다 6백억원씩 투입, 체육관 시설이 없는 지역의 초·중학교에 강당 겸 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98년까지 매년 60개(초등 40개, 중학교 20개)씩 신축하게 된다.

'96 교육 개혁 박람회, '21세기 미래 교육'

교육부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은 21세기 미래 교육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96 교육개혁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박람회'는 박람회 준비 과정 그 자체가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써, 우리 교육 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 전시기간: 96. 7. 20~8. 2

▶ 전시장소: KOEX 별관 1.2.3호실

▶ 추진기관: 교육부 주최, KBS문화사업단 주관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산하어린이〉통신 판매
전화 한 통으로 〈산하어린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전화 332-7641 팩스 313-2582

이오덕·권정생·위기철·신경림·이현주·윤기현·지동환·강장규·이재복·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M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M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MCA, 어린이 문화 진흥회, 부산 YM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새로 나온 책

산하어린이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띠에 얽힌 공금종과 재미난 이야기를 한데 엮어 놓은 열두둥을 열두 가지 이야기. 흥미만점 공부도 만점.

산하어린이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국보'책. 박물관마다 보물창고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마다 박물관이 하나씩.

▶생물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차돌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교실 어린이
- 34 혼자서 큰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5 날마다 큰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화정책
-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최향숙
- ▶과학이야기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현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성영
- 62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병
- 63 끊임없이 피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병
- 64 악착같이 달려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병
-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 3 4 5 임력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현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 52 53 보마 단군 1·2 정우상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정민
-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운정
-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운정
-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허 한·김복근

▶연말이야기

- 7 전태일 위기철
- 33 윤동주 정진규
- 49 신재호 김시정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장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성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9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 14 비보와 바보 박성규
-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딸보마이 이상진

20 하루나리 하루왕 이준연

-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람 박성규
- 23 기다리 동선 장수 아저씨 유계종·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화초리와 훈장 윤기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진
-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 30 심마의 아이들 신승형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 45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46 작다고 꺾다 큰코 디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48 김철지의 매주공 이재복
-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55 사장이 된 풀벌레장수 박성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 69 느릅골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장정규
- 76 흰둥이와 겹둥이 이오덕·권정생 외
- 79 불귀신 아버지 김학철 외
- 80 오얏꽃을 낳은 편지 편선자 외
- 82 비를 부르는 소년 김운배
- 84 동글이와 덩글이 홍윤희

89 허루살이 이물살이 장문식

- ▶역사이야기
- 36 민요기행 신경림
- 68 열썬구 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규
- 74 짚썬구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식
- ▶과학이야기
- 77 개비 개비 참도깨비 정종태
- 77 백두산 산삼과 매산이 이야기 동내
- 78 천지와 돌비들 이야기 동내
- 87 일만이천통 이야기 고개 이야기 동내
- 88 허루살이 이물살이 장문식
- ▶조선산하
- 121 012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즐거움 여름방학

어린이 숲속학교를 소개합니다

‘스스로’ 놀이 통해 자연과 친해지는 방법 배워

어린이 숲속학교는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지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해마다 추진했던 사업이다. 96년 5회째를 맞아 서울교육대학 총학생회와 놀이연구회 ‘놀이’가 힘을 더한 숲속학교는 어린이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일하는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숲속학교는 실험학교다.

교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똑같이 가르쳐야 하는 틀을 깨고, 새로운 교육과정과 다양한 내용을 마련하여 새로운 학교의 모습을 실현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숲속학교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 것,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와 선택을 경험하여 민주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 한다. 자기만을 생각하기 쉬

운 어린이들에게 모둠활동을 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실현의 방법을 찾아내게 한다.

숲속학교는 자연학교다.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태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환경교육의 방향을 찾아 어린이로 하여금 도시생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며, 자연에 대해 친화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들꽃 관찰, 물 속의 생태계 탐사, 숲 속에서의 실험과 관찰 등을 통해 놀이를 하듯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게 한다.

숲속학교는 놀이학교다.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이들,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여럿이 모여서는 놀이를 할 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서 함께 놀 줄 아는 어린이가 되게 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 전래의 놀이들을 연구하고 보급하며 애쓴 성과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숲속학교는 자율학교다.

어린이들 스스로 모둠을 선택하고, 의논하여 교육과정을 선택하며, 생활규범을 정하여 생활하도록 한다. 선생님들은 이런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이다. 모둠 구성원끼리 마음을 모아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도록하여 자신감 있고 주체성 있으며, 협동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숲속학교가 제도교육 속에서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실험의 마당이 되며, 어린이들에게는 좀체로 접해 보기 어려운 마음이 열린 선생님과 동무들을 만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두림 (전교조 초등지회)

때 : 7월 31일 ~ 8월 2일

곳 : 경기도 남양주군 서림 수련원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참가비 : 70,000원

(회원 60,000)

문의 : 634-6508/675-9068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635-2242/636-665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여름방학 캠프 안내

제 목	일 시	장 소	대 상	회 비	문 의
어린이 독서캠프 '제3기 숲속 동화나라'	7.22~24	가평양지말	초등 3~6	90,000	3672-4447
따도학교 표현, 창작캠프	8.10~13	천마산 수련장	중고 청소년	75,000	745-8968
YMCA 래프팅 학교	7.29~30	강원도 철원	초·중·고, 일반	64,000	591-6060
인터넷 여름캠프	7.17~8.15	충북 진천	초·중·고	59,000	538-6941
거창고등학교 교육기행	7.14~16	경남 거창고	일반	30,000	678-6776
YMCA 청소년 연극 워크숍	7.23~8.16	서울 YMCA강당	중·고	30,000	734-0173
꿈나무 여름캠프	7.20~22	남이섬 캠프장	초등 1~3	68,000	723-6730
청소년 그린캠프	7.22~31	설악 잼버리	초등3~중등3		216-2412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이렇게

예산낭비 없이 교육에만 쓰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운영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예·결산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학기가 다 지나가지만 이제라도 세부 항목이 나와 있는 자세한 예산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재정은 학교 경영과 교육 활동을 계획, 실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수입, 지출하는 활동으로 (1)예산의 편성 (2)집행 (3)효과와 효율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다.

경비의 조달은 (1)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교육비특별회계) (2)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지원비 (3)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비가 있다.

학교 교육비의 예산 편성에 교육계획을 세우는 교사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원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가 포함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 전달하는 과정 없이 학교에서 집행하며 학부모회에 보고한다.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배경액이 결정 통보되어 학교는 융통성의 폭이 무척 좁았는데 올해부터 배분하지 않고 도급경비제로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치예산을 활용하므로 예산을 함부로 유용할 위험도 있다.

운영위원들은 예산 책정에 우선 순위

가 잘 정해졌는지, 낭비없이 규모있게 짜여졌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에는 교원연구비 및 수당, 학생복지비, 실험실습비, 학생자치활동비, 도서비, 학교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 학부모 모임 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보충수업비, 체육진흥회비, 찬조금 등이 따로 관리되는 수가 있는데 운영지원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찬조금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모두 학교운영지원비 회계로 편입해야 한다.

운영위원들은 예산심의의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잘못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학교예산을 좀더 교육적인 목적에 사용하도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예·결산 심의를 할 때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얘기하면 △학교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때 서무 책임자에게 올해 예산안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예산심의 전에 운영위원끼리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생각하고 참여한다. △예산안을 사전에 받도록 한다.

심의 당일 예산서를 받으면 제대로 심의할 수 없으며, 항목별로 집계한 예산서를 받아 보아야 내용을 알 수 없다.

예산은 학교의 살림이므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과 직결된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학교마다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명희(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위원장)

학부모 만평

이숙자



◇방학특집—교육방송 프로그램 안내 및 활용방안

EBS 적극 활용 부모의 관심에 달려 있어

학습 프로그램 적절히 이용하면 효과적

케이블 TV개시, 지역 민영방송 개국 등 방송매체의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도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부터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민의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방송이 유독 눈길을 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이같은 교육방송의 다양한 '무공해' 프로그램 가운데 초·중·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만한 몇몇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생활 프로그램 새로 제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가운데 여름방학 동안 과제로 나오는 탐구생활 관련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과 시간대에 방송된다.

이번 탐구생활 방송의 특징은 TV의 경우 3·4학년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전편 새롭게 제작된 데 있다. 이는 95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행하던 탐구생활을 연차적으로 각 시·도에 이관하기 때문에 5·6학년 탐구생활은 전국 공통이지만 3·4학년 탐구생활은 1·2학년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단독 개발, 또는 개발하지 않는 등 각 시도별로 개발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에는 주당 학년별로 3편이던 것이 1편으로 축소되었고, '탐구생활 상담실'이 학년별 생방송으로 30분간 진행된다.

창의력과 사고력 길러 주는 프로그램 많아

탐구생활 프로그램 외에도 자녀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방학 생활계획표에 미리 표시해 두고 적극적으로 즐겨볼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듯하다.

〈헬로 잉글리시〉(월·화, 오후 5:15)는 쉽고 재미있는 생활영어 중심의 '초등영어' 프로그램이며, 〈컴퓨터는 내 친구〉(월, 오후 5:40)는 컴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추리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린이 논리극장〉(화, 오후 5:40), 점점 잊혀져 가는 전래동요를 소개하고 즐겨 부르는 동요를 들려주는 〈도레미 여행〉(목, 오후 5:40), 국어·수학·영어·자연 등의 과목에서 궁금한 것이나 알고 싶은 것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생방송 선생님 질문 있어요〉(토, 오후 5:35), 만화극장 〈참 바쁜 세상〉(금, 오후 4:50)과 〈모차르트 음악대〉(토, 오후 4:50)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밖에도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 〈야호! 퀴즈마음〉(일, 오전 11:00)과 동물의 생활을 이해하고 동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자랄까〉(수·목, 오후 5:15), 귀여운 강아지 위시본이 안내하는 〈위시본의 이야기 보따리〉(토, 오후 6:35), 〈꼬마 요리사〉(토, 오후 5:15), 〈학교 밖 미술여행〉(수, 오후 5:40), 〈EBS 발명왕국〉(금, 오후 5:15), 돌리



◀ 중학생들이 실험을 통한 공부를 하고 있다.



▶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자연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의 만화가 김수정씨가 나와 재미있게 만화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만화를 그려요〉(금, 오후 7:05) 등도 모두 자녀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들이다.

학습 프로그램 세분화되어 있어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습·보조 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져 있으며, 과목·학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중학교 교과과정에 준하되 주요 과목만을 선택하여 TV로는 1·2학년 과정을, 라디오로는 3학년 과정을 다룬다.

1·2학년 대상 학습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6시 25분 TV로 방영된다. 중1 과정은 월요일에 과학, 화요일에는 수학, 수요일 영어, 목요일 국어 순으로 진행되며, 이어 6시 45분부터는 중2 과정이 월요일에 국어, 화요일에 영어, 수요일에 수학, 목요일에 과학 순으로 방영된다. 중3 과정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라디오를 통해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국어와 영어 듣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영어와 과학, 사회 과목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수학, 국사, 도덕 과목이 진행된다.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 외에도, 경제의 기본원리를 체험을 통해 직접 알 수 있도록 배려한 〈작은 경제인〉이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25분부터 방영되고,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과 그들의 꿈과 희망의 세계를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는 청소년 드라마 〈우리는 와이틴〉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5분부터 방영된다. 또 한 청소년의 각종 활동을 소개하거나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제작된 〈아름다운 세상 커다란 꿈〉은 매

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방영된다.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 수업을 보충, 심화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방송내용을 담은 교재가 발행되어 있다. (아래 표 참조)

정숙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상 교육방송이 제공하는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이용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육방송 연구국의 장재현 교재개발 부장의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통한 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 △주변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시켜 줄 수 있다 △학생들 각자가 문제 해결 활동, 탐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내용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접촉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방송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장재현 부장은 "TV를 시청할 때 먼저 해당 학습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주고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학습내용을 듣고 모르는 것은 체크를 해서 시청한 후에 부모에게 물어보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같이 시청하는 것이 좋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방송 시간대를 맞추기 힘들면 부모가 녹화나 녹음을 해서 적당한 시간에 활용하도록 정성을 쏟는 것이 좋다"고 한다.

실제로 교육방송을 가까이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관심과 정성이 뒷받침된 경우가 많다. 유아원에 다니는 자녀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들 둔 대전의 이지희씨는 "아이들이 TV를 켜놓고 딴 짓을 하더라도 교육방송에 채널을 맞추어 틀어놓는다. 그러면 놀면서도 소리를 듣거나 가끔씩 화면을 쳐다보기도 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시청을 한다"고 말한다.

또 목동의 박진영씨 경우는 "TV를 켤 때 가능한 한 EBS에 채널을 고정시키도록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만화를 보다가 자기 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간에 채널을 돌려 재미있게 본다. 특히 중1 아이의 경우는 중1 영어, 수학 시간을 이용해 보충수업을 하는 편이다"라고 말한다.

등촌동의 이진실씨 역시 "고2, 중1 아이의 경우는 TV학습시간을 미리 알려주거나 학원시간과 겹칠 때는 녹화를 했다가 보여주고, 중3 아이 경우는 라디오 방송을 녹음했다가 들려준다. 엄마가 신경을 쓰면 아이들도 그만큼 교육방송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번 방학 동안에는 자녀들이 좀더 교육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도록 부모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영미 기자〉

구 분	과 목	방송 기간	방송 시간
언어 영역	국어	7/22~10/26	토 22:10~23:40
외국어 영역	영어	"	월·화 22:10~22:55
수리·탐구 영역	수학(인문·예·체능)	"	월·화 22:55~23:40
	수학(자연)	"	"
수리·탐구 영역II	과학 I(상)	7/24~8/8	수·목·금 22:55~23:40
	과학 I(하)	8/9~8/28	"
	과학 II(인문·예·체능)	8/29~9/13	"
	과학 II(인문·예·체능)	9/18~10/3	"
	과학 II(상) 물리(자연)	8/29~9/13, 10/4~10/16	"
	과학 II(하) 화학(자연)	9/18~10/3, 10/17~10/25	"
	국사	7/24~8/2	수·목·금 22:10~22:55
	세계사	8/7~8/16	"
	한국지리	8/21~9/4	"
	정치·경제	9/5~9/19	"
	국민윤리	9/20~10/3	"
	세계지리(인문)	10/4~10/16	"
	사회·문화(인문)	10/17~10/25	"

*교육방송 프로그램(TV/라디오)의 복사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방송 영상사업부 (☎ 02-522-8400~2)로 문의하면 된다.

◆ 가족이 함께하는 성 이야기(12)

여자가 주체적으로 설 때
남자도 인간적 삶 누려

(1)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

다양한 매체를 통해 흡수되는 왜곡된 사랑의 각본 중 '하나됨'의 각본을 봅시다. 지금까지 왜곡되어 온 하나됨이란 여자가 남자에게 흡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결혼제도와 바로 연결되지요. 남녀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비롯하여 입맛까지도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친정 부모보다는 생면부지의 남편 부모를 나의 부모인양 모셔야 함

은 물론 20년 넘게 길들여진 입맛까지도 시대를 좇아야 했지요. 이러한 결혼 문화의 당연한 결과 중의 하나가 고부갈등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생면부지의 며느리에게 아들의 경제권과 사랑을 빼앗길 수 있는가?'라는 시어머니와 '내가 왜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직도 시어머니 위주로 생각하는가?'라는 며느리와의 갈등은 남편과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철저히 의존해야만 했던 삼종지도의 역사적 잔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 문화에서 남자들의 삶 역시 억압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자가 주체적으로 홀로 설 때 남자도 인간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쪽 삶이 없어지는 하나됨은 자녀들 세상에서는 두쪽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이란 서로의 개성과 적성이 존중되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쪽의 의식과 개성이 죽으며 진행되는 두 사람의 '하나됨(흡수 통일)'은 그 삶의 질도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의식과 개성이 서로 살아있는 가운데 진

행되는 '하나됨'은 그 삶의 질이 둘 이상이 되지요.

연애 시절 여자의 온갖 비위를 맞추 수 있는 남자는 결혼 후 남자의 비위만 맞추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사고를 가진 남자와 여자, 개인의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와 여자, 심리적인 홀로서기가 우선 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 이들은 결코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불평등한 결혼 제도에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딸, 아들에게 '하나'되는 사랑의 자리 매김을 평소에 제대로 해 줍시다.

〈윤양현·여성학자〉



◆ 중등학교 열린 학습론(4)—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열린 학교와 함께 신나는 방학을

한나래 어머니님, 어느새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중고생들이 어떻게 하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죠. 우선 방학 하면 방학 숙제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중학교에서는 각 과목마다 문제집 풀어오기, 교과서 단어 다섯번씩 써 오기, 편지쓰기 등의 편리하고 늘 해오던 숙제들이 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보충수업이 2주 정도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방학엔 평소 학교에서 학습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학습해 보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여러 단체가 마련한 열린 학교에 자녀가 다니게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중 몇 해 전부터 사범대생(예비교사)을 중심으로 현직 교사가 참여한 숲속, 환경, 역사, 통일 학교 등을 권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대부분의 중·고생을 굴레에서 허덕이게 하는 입시위주 '교과서 학습'과 '학교'란 형식을 뒤바꿀 대안으로,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님의 이제까지 틀에 매였던 생각을 바꿔주는 우리 교육의 희망찬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혹 아무리 방학이라도 오늘의 대학입시 틀 속에서 과연 좋을까란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열린 학교의 운영

계획서를 찬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극, 방송, 신문, 문학, 풍물, 만화, 비디오 제작, 생활미술, 노래, 놀이, 하이킹, 춤, 민족무예 경당, 컴퓨터, 토론과 논술, 역사 등의 여러 교실에서 펼쳐 아이들 세상을 그려 보십시오. 나아가 야영과 사회봉사, '체험! 삶의 현장' 등에 이르는 알찬 계획을 마련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21세기 희망과 통일의 꿈을 아이들과 함께 이룩하려는 선생님, 청소년 단체, 교사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무덤기만 한 여름 소중한 친구도 사귀고 한때의 추억도 만들며 함께 배우고 노는 즐거움만큼 아이들이 고된 일과에 쫓기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열린 학교에서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겨레의 할 일이며 각자가 2000년대, 나라를 이끄는 일꾼으로서 열린 시대를 가꾸고 보듬어 가겠노란 뜻을 다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방학 중 열린 학교에서 한데 어울려 힘써 배우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그려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저도 아름답게(아름답고 건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로서 한나래를 비롯한 여러 푸른 이들과 함께 마음껏 어우러지고자 애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김두루한·시흥고등학교〉

▶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30선 ◀

- ◇ 허공에의 질주 시드니 루멧 '88
- ◇ 흐르는 강물처럼 로버트 레드포드 '93
- ◇ 작은 시인의 사회 피터 와이어 '89
- ◇ 귀여운 반항아 플로드 밀러 '86
- ◇ 나의 원발 집 세리단 '89
- ◇ 올 일마즈 쿠니 '82
- ◇ 우울한 중례시간 서울 YMCA "푸른영상" '89
- ◇ 영국의 썸머힐 MBC 「세계의 교육, 그 현장을 가다」중 홍순철 '89
- ◇ 비정성시 후효연 '89
- ◇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박광수 '95
- ◇ 밥 로버트 팀 로빈슨 '92
- ◇ 그랑부르 픽 베송 '88
- ◇ 낮은 목소리 변영주 '95
- ◇ 까미유 클로델 브루노 누벨 '89
- ◇ 시네마 천국 주세페 토르나토레 '89
- ◇ 장미의이름 장자크 아노 '86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박종원 '92
- ◇ 스모크 웨인 왕 '95
- ◇ 악기공룡 둘리 '89
- ◇ 그리스마스의 악몽 헨리 셀릭 '94
- ◇ 프리월리 사이먼 윈서 '93
- ◇ 세상의 모든 아침 찰리 반담 '94
- ◇ 현 위의 인생 체 카이거 '90
- ◇ 베이 장 자크 아노 '89
- ◇ 시온드 오브 뮤직 로버트 와이즈 '89
- ◇ 올리버 캐롤 리드 '68
- ◇ 25시 헨리 버뉴일 '67
- ◇ 시라노 장 폴 라쁘노 '90
- ◇ 붉은 10월 존 맥티어란 '90
- ◇ 굿모닝 베트남 배리 레빈슨 '87

◇ 자료제공: 「건강한 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기도 했다. 우리 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3위이고 그중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의 30%를 차지함을 생각할 때 국내에서 처음으로 94년에 제작된 어린이 대상의 성폭력 예방 비디오 '내몸은 내가 지켜요'는 큰 의미가 있다. 또 95년에 만들어진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은 여성들이 잘못된 직장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이밖에도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20여종의 각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전문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성폭력 피해 사례들(성폭력 피해자

김부남, 김보은·김진관 사건, 윤금이 사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등)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피해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걸어 본다.

〈남경아 상담원팀 차장〉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Fax: 576-7127
 주소: 서울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137-600)

◆ 상담소 탐방(3)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센터 지킴이(야간 상담원) 등 약 1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상담소는 전화·면접·서신을 통한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상담과 전문상담원 육성을 위한 상담원 교육, 상담소의 활동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소식지 '나눔터' 제작 등의 홍보·출판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성폭력 위기센터'를 24

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친족성폭력 등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하여 94년 9월 국내 최초로 성폭력 피해 여성만을 위한 '열린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상담소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어린이 성폭력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비디오를 제작하

최근 신양중학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성폭력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때에 성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간 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를 소개해 본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고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취지 아래 1991년 개소한 이후 현재는 자문위원 106명, 전문상담원, 상담소 사무보조 활동을 하는 나눔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22-1(2층)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5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엄마 백점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가르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 받지는 못하는 8년차(?) 글쓰기교사다.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글 쓰기 수업이라 아이들을 많이 낯설지 않아서 다행이고, 엄마와 아이들에게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상담자가 된다는 뿌듯함과, 아이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가꾸어 준다는 자부심을 갖고 수업하고 있다.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엄마들이 "아이가 글씨를 못 써요" "맞춤법이 많이 틀려요" "왜 일기도 못쓰는 거죠?" 하면 "어머니,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강요하지 마세요. 글씨 예쁘게 쓰고 맞춤법 신경 쓰다 보면 솔직하게 글을 못 써요" 하면서 엄마도 아이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는데 1학년이 된 우리 아이에게는 논리적이고 침착할 수 없었다.

받아쓰기에서 처음 80점을 맞고, 매일 받아 오는 상표를 한 장도 못 받아왔을 때는 그래도 너그러웠다.

"괜찮아 어떻게 매일 잘 할 수 있어?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잖아."

그러나 계속 상표도 못 받고 100점을 받지 못하자 목소리는 한 옥타브 올라가서 "너 계속 이럴 꺼야?" "너 정말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할거야?" "왜 이렇게 글씨가 날아가니?" 흥분해서 떠돌고 있다.

정말 나는 아이를 이해하고 억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제 1학년인 아이들에게 글씨가

빼돌고 띄어쓰기가 안 맞다고 지워버리고, 수업시간에 장난했다고 아이 뺨을 때리고 필통을 빼앗아 두 달이 지나도록 주지를 않는다고 한다.

필통을 뺏긴 엄마는 선생님 처분만 바라고 필통을 안 사주고, 아이는 교탁 밑에 있는 자기 필통을 선생님이 언제 주시려나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벌로 아이들 물건을 빼앗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빨리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선생님은 한 반에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고충도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에도 따라야 하니 모든 아이들이 만족스러울 수 없고, 엄마들은 학교에서 내 아이가 더 귀여움 받고 잘 보이게 하려고 선생님에게 찔찔 매고, 집에서는 '재네 선생이 어땠고, 선생들이란 어땠고' 하면서 선생님들 욕하는 데 침을 튀긴다.

이제 1학년이 된 내 아이는 앞으로 십수년간 어떤 선생님을 만날것이며 얼마나 더 바뀌어 가는 교육정책 아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정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에서 또 얼마나 갈등해야 하는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내 아이만 잘하고 살 수는 없는데 선생님 앞에서 찔찔 매지 않고 침 튀기며 선생님 욕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 희망을 갖고 자꾸자꾸 모이고 있으니 참교육이 실현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박종숙(인천시 부평구)

왜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야, 너 왜 어제 자꾸 토했니?"

"나 어제 너무 취했나 봐."

허스키한 목소리, 그러나 몹시 옛된 목소리에 놀란 나는 버스 좌석에 앉아 내 옆에 서 있는 학생들을 쳐다보았다. 노랗게 물들인 머리, 솜털이 채 가지지 않았을 얼굴에 한 화장, 요즘 유행하는 검은 진바지에 흰 티셔츠...

우리 동네는 워낙 소박하기에 유흥가도 없고 부잣집도 없지만 아이들 기르기엔 좋은 동네라고 자부하던 나는 눈과 귀를 의심해야 했다.

모두들 학교에 갔을 오전 시간에 아무리 해도 15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세 여학생은 단발머리만은 어찌지 못해 학생티를 내고 있을 뿐 거친 말투와 상상을 초월하는 대화 내용으로 한적한 시간 버스에 타고 있던 어른들을 질리게 하고 있었다.

요즘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의 탈선이 많다고 들었다.

그들은 왜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을까?

며칠 전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다'던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학교에서 본 시험지를 갖고 왔다. 시험지는 배운 내용뿐 아니라 폭넓은 이해력 없이는 풀기 어려운 문제로 가득했다.

평소에 학교생활에 충실했고 시험을 본다는 예고에 문제집도 풀었던 딸은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 무척 실망했는지 "엄마, 나도 이제 학원 보내주세요" 하며 엉엉 울기까지 했다.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다고 이상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성실하게 공부한 평범한 학생들도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것인지, 늘 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청소도 빼먹고 숙제나 준비물도 챙겨 오지 않아 혼이 난다는 딸아이의 작은 과연 시험을 잘 보았는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좌절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몹시도 착잡한 것이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아이의 좌절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성실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 그래서 성적도 하위권인 아이와 학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의 반란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좀더 일찍 시작된 것은 왜일까? 혹시 더욱 어려워진 교과과정에 숨쉴 틈 없는 진도와 열악한 교육 환경, 서너 명만 따라갈 수 있는 수업 방법 등이 그 아이들을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실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부모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아이들은 탈선까지는 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부 못하면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부모도 편한 마음으로 대하기 힘들 것이다.

학교와 사회와 부모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노래방에서, 비디오방에서, 밤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들의 셋노란 머리와 기이한 옷차림은 그들이 무척 힘든 상황에 있음을 온몸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 못마땅하기보다 측은한 생각이 든다.

모든 아이들이 나이에 걸맞은 밝은 표정과 자신감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이정남(은평구 신사동)

흙과 함께 보낸 하루 함라도예교실을 다녀와서

토요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와 숨돌릴 겨를도 없는 아이들을 버스에 태웠다.

늘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제시되지 못해 쉽사리 실행하지 못하던 차에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들뜬 마음으로 도예 교실을 찾았다.

산 기슭의 감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조형물, 띄엄띄엄 자리잡은 작업대. 무엇인가 대단한 작품(?)이라도 만들어 낼 것만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 초롱초롱한 눈들이 교수님의 간단한 설명에도 진지함을 보여줬다.

개인별로 떼어 받은 흙으로 작은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손바닥도 눌러 찍고 필통도 만들고

부모님, 친구에게 줄 선물도 만들었다.

제대로 된 작품(?) 하나도 만들지 못한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마냥 즐거움에 척척 잘도 빚어내는 아이들의 모습에 그냥 즐겁기만 했다.

얼굴이며 옷에는 흙범벅을 한 채, 감나무에 매달린 그네를 타고, 흙으로 범벅된 손도 씻지 않은 채 간식을 마구 먹어대며 제각기 자연 속에 흠뻑 빠져 있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을 가을에 다시 오지는 아이들의 아쉬움 섞인 소리를 들으며 작은 전시장을 돌아본 후, 가마에서 잘 구워진 작품(?)들을 남겨 둔 채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그곳의 경험과 느낌이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라며 좀더 적극적



▲ 작은 손으로 작품(?)을 빚는 데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

인 계획과 실천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김형실(익산지부 문화부)

- 참교육 학부모회를 상징하는 심볼 마크를 모집합니다.
- 학부모회 활동 모음은 지면 사정에 의해 쉽니다.

포커스

고교 외국어 교육 영어만이 전부인가

유 혁 재(휘경여자고등학교)

◇회원이야기-가족신문 만드는 박정숙씨

“올바른 삶에서 좋은 글이 나와요”

우리 집만의 문화 가족 신문으로 창조



▲ 박정숙씨집 다섯식구가 가족신문을 만들고 있다.

이번호부터 회원들의 집이나 일터를 찾아가 열심히 사는 그들의 모습을 담아 실는다.

장마비가 한창이던 날 과천 박정숙(37, 전업주부)씨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거실 한 벽면을 가득 채운 책이 집안 분위기를 잘 말해 주었다.

박씨 가족은 '만경택네'라는 이름의 가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로 유명하다.

결혼 10주년을 맞은 93년 남편 손창성(42, 공무원)씨와 자신들만의 가족 문화를 갖고 싶어 신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태호를 딴 '만경택네'는 계간으로 지난달, 9호 150부를 발행했다.

“서울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던 큰아이가 3년 전 과천으로 이사 오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 그런데 가족신문을 통해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죠.”

박씨는 가족신문을 통해 학교는 물론 이웃, 친척, 친구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다고 한다.

파킨스씨 병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박씨는 틈틈이 어린이도서연구회에 나가 동화 창작 공부도 하고 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

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죠. 남편의 성격이 강한 편이라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아서인지 아이들도 할 말은 자유스럽게 하는 편이죠.”

박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과 공부보다 예체능 공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들 재원(초등6)이는 피아노를, 딸 정은(초등4)이는 바이올린을 한다. 또 재원은 과천시립 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지난해 홍콩과 미국으로 연주 여행까지 다녀왔다.

“재원은 학교에서 돌아 올 때면 계단을 오르며 늘 노래를 불러요. 집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이번 여름 방학 '만경택네' 아이들은 경북 예천의 외가로 간다. 방학 내내 시골 생활에 흠뻑 빠져 볼 계획이란다.

학부모회 회원이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해 늘 미안하다는 박정숙씨의 마지막 말 속에 참교육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다.

“저는 아이들이 미루나무처럼 크지 않고 느티나무처럼 크기를 원합니다. 넓게 그늘 드리우고 많은 사람 쉼 수 있게 하는 느티나무 처럼 말입니다.”

(송주비 기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2년째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는 나는 요즘 심한 갈증을 겪고 있다.

독일어는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또 이렇게 맥빠진 수업을 하고 있는 내가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이다.

저학년 학생들은 그런 대로 가르칠 만하지만, 고3이 되면 아예 독어 시간에 판 과목 공부할 생각만 갖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수업 풍경인가?

우리 학교는 그래도 정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출석부에 '독어' 표시만 하고 영어나 다른 과목을

보충해 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일어가 필요한가'에

대한 나의 고민은 곧 '그렇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지만, 두 번째 고민인 무기력증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다. 이런 증세는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를 맡고 있는 모든 교사에게 공통된 현상일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의 방향은 '세계화, 경쟁력' 등의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의 의미는 단순히 선진국의 꿈무늬만 따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는 더욱 아니다.

세계가 좁아졌으니 각 나라는 갑자기 하나로 뭉쳐 협력하며 잘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특성을 잘 살려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하고, 동시에 영향력 있는 여러 나라의 특징을 잘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영어에만

의존하려 하고, 그것도 조기영어교육을 강행하려 (교사와 시설은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뿐이다.

여기서 '영어 조기교육의 타당성'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영어 일변도의 외국어 정책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제2외국어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은 언제까지 괴로움을 참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어야 하는가가 걱정되는 것이다.

영어가 세계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제, 문화적으로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실리를 챙기기도 어렵다.

만약 미국 이외의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영어로만 얘기한다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다양성이 없는 외국어 정책은 언젠가 우리의 입지를 분명 매우 어렵게 만들 것임에 틀림없다.

고등학교는 결코 공부의 끝이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완벽하게 끝마치는 것이 목표가 아닌 바에야 다른 외국어를 접하게 하는 것이 다양성의 출발이고, 그것도 흉내가 아닌 실질적인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입시만 준비시키면 끝이라는 눈먼 입시과열은 결국 국가의 장래(또는 경쟁력)를 암담하게 할 뿐이다.

원한다면 대입수능능력시험에서 영어 대신에 제2외국어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어떨까? 나아가 입학시험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맥빠진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노력이 시급히 있어야 하겠다.

맥빠진 제2외국어(?)수업 활기 찾기 노력 시급

우리교육 서울시 중로구 무악동 9-13 영업부 730-1273

쑥쑥문고12

400년 전, 레오나르도가 아이들에게 들려 준 73가지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 동화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어린이를 위해 쓴 우화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일 뿐 아니라 기술자, 발명가, 조각가, 건축가이며, 물리·수학·해부학·역학·식물학 등 여러 분야에도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니며 관찰한 것을 꼼꼼이 적었던 레오나르도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치밀한 자연 관찰을 바탕으로 한 73편의 동화는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부모가 읽어 주면 효과적인 동화

짧은 호흡으로 가뿐하게 읽을 수 있는 73편의 레오나르도의 동화는 교훈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더 많은 재미를 줍니다. 또,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인 묘사를 한 이 이야기들은 보다 많은 상상력을 키워 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 속에 내포된 의미를 감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 편 한 편이 짧막해서 지루하지 않으며, 재미있는 삽화는 아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쑥쑥문고는 기존의 동화책과는 다릅니다

『쑥쑥문고』는 저학년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좋은 글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어린이들이 책읽기에 가장 편안한 글자 크기와 재미있는 삽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쑥쑥문고』는 기존의 동화책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동화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지음
신미원 옮김
값 4800원

학부모, 자녀 위한 7월 행사

서울 강서남부지부

독서방, 글쓰기 교실(장정식)
 • 일시: 7월 20일부터 매주 토 10:00~12:00 (4회)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 초등학생
 • 내용: 생활문 쓰기
 • 참가비: 30,000
 살아있는 미술공부-엄마랑 함께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봐요 (이선경)
 • 일시: 7월 20일부터 매주 토 13:00~15:00 (4회)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대상: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 참가비: 30,000
 • 문의: 634-6508, 642-8707

서울 관동강남지부

방학중 아이들과 이렇게 해보세요(정은주)
 • 일시: 7월 16일 10:00~12:00
 • 장소: 방배동 사무실
 • 문의: 0342-703-8933

서울 동북부지부

신·구회원 만남의 날
 • 일시: 7월 12일 10:00~13:00
 • 장소: 마들 근린공원
 • 문의: 939-6857
 남북 어깨동무회원 그림보내기
 • 일시: 7월 16일 14:00
 • 장소: 마들 근린공원
 • 대상: 유아, 초등학생
 • 준비물: 크레파스 또는 수채물감
 • 문의: 939-6857
 심성개발훈련-나 자신 바로알기(이규미)
 • 일시: 7월 7일, 14일 10:00~17:00
 • 장소: 용문엘리트 학원
 • 대상: 초등 6학년, 중학생

• 참가비: 각 40,000
 • 문의: 977-4206

서울 중서부지부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책(한명섭)
 • 일시: 7월 18일 10:00
 • 장소: 신촌사무실
 • 문의: 386-7631, 336-5988
 여름방학 초등학교 연교교실 (최지영)
 • 일시: 7월 22일~26일
 • 장소: 신촌사무실
 • 대상: 초등학생 (7월 15일까지 신청)
 • 참가비: 30,000
 • 문의: 386-7631

인천지부

인천지역 학교운영위 학부모위원 협의회 모임
 • 일시: 7월 4일 10:30
 방학 중 과외학습과 보충수업 논의
 • 일시: 7월 11일 10:30
 자생단체의 운영과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 일시: 7월 18일 10:30
 학교급식후원회 구성과 활동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월례회 「후회없는 방학, 이렇게」
 • 일시: 7월 23일 10:30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 032-525-8342
 풀벌레 우는 교실
 • 일시: 7월 28일~31일
 • 장소: 경기도 마석 서림 수련원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선착순 50명)
 • 접수: 7월 20일까지 (전화접수 후 입금)

• 참가비: 65,000
 • 문의: 032-525-8342

익산지부

4기 해동이학교-교실밖의 교실
 • 일시: 8월 5일~7일 (3일간) 오후 2:00~9:00
 • 장소: 원광대학교
 •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50명 (7월 10일 이후 선착순)
 • 참가비: 15,000원
 • 문의: 0653-834-0347, 0653-855-0812

전주지부

여름 역사기행
 • 일시: 7월 26일~27일
 • 장소: 공주 마곡사, 예산 남연군 묘, 윤봉길 의사사당, 운산 마애삼존불, 보은사지
 •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선착순 40명)
 • 참가비: 40,000
 • 문의: 0652-231-6242

여천지부

• 일시: 7월 3일 10:00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육'을 읽고
 • 장소: 열린교실
 • 일시: 7월 11일 10:00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최연석)
 • 장소: 시민협 (국민은행 건너편)
 • 문의: 0662-685-3430
 • 일시: 7월 17일 10:00
 회원가족 등산(지리산 뱀사골)
 • 일시: 7월 23일 10:00
 신문읽기와 여름캠프 준비

• 장소: 열린교실
 • 문의: 0662-84-5116

마창지부

월례회
 • 일시: 7월 12일 2:00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 문의: 0551-45-0341

울산지부

역사기행
 • 일시: 8월 19일~21일
 • 장소: 전복일대 (미륵사지, 왕궁리 5층석탑, 벽골제, 금산사, 동학 전적지, 실상사)
 • 문의: 0522-97-0340

부산지부

여름숲속학교
 • 일시: 7월 25일~27일
 • 장소: 연양 간월산 휴양림
 • 대상: 초등 1~3학년 (선착순 80명)

• 참가비: 60,000
 • 문의: 051-247-1795, 051-246-1628

역사기행-역사의 삶속으로
 • 일시: 8월 6일~8일
 • 장소: 경주 우리문화 수련원
 • 대상: 초등4~6학년 (선착순 80명)
 • 참가비: 65,000
 • 문의: 051-246-1628, 051-247-1795

고양지부 준비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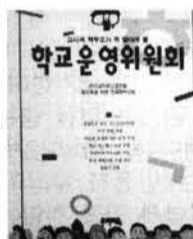
글쓰기, 독서지도 모임
 • 일시: 7월 8일부터 매주 월 10:00~12:00
 어린이 미술지도 모임
 • 일시: 7월 11일부터 매주 목 10:00~12:00
 역사 탐방 모임
 • 일시: 7월 12일부터 매주 금 10:00~12:00
 • 장소: 일산3동 후곡마을 신일초등학교 뒤 한뢰프라자 305호 (고양시민회)
 • 문의: 0344-918-1717

학부모를 위한 책

교사와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주)우리교육/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5·31교육개혁안 가운데 가장 사 람 들 의 관 심 을 끄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이 책은 학교운영위원으로 뽑힌 교사·학부모 위원들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는 교육 실용서로, 학교 운영에 대해 잘 몰라 답답해 하는 운영위원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는 유익한 책이다.

◇영상연수 안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문화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비디오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연수를 합니다.

- 일시: 8월 11일 ~ 14일 10:00 ~ 18:00
- 장소: 당산동 전교조 문예위 연습실
- 참가비: 10만원(숙박하는 경우)
- 문의: 참교육 학부모회 (675-9068)

(주)코치스쿨
 Korea Computer Help Instruction School
 상담: 3444-0320 3444-0324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 과정 조화 및 학생 수준, 과목별 약 강점 진단 기능 -- 전국 14개 학교에서 운영 중

코치스쿨 학습 시스템 원리

1. 시험 대비 시스템
2. 학년의 책을 뛰어넘는 무학년 시스템
3. 개인 교시보다 뛰어난 개인지도 시스템
4. 내 약점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 확인 시스템
5. 중분히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 공부시키는 피드백 시스템
6. 목표이해 학습법
7. 스몰 스텝 학습법
8.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임식 학습법
9. 알아서 공부하는 힘을 길러 주는 자율 학습 시스템
10.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는 마이 페이스 학습법

코치스쿨 관리 시스템 원리

1. 학습계획실현분석: 학습 계획에 의한 학습 실천 확인
2. 주간학습시간분석: 주간 중 학습 시간 및 과목별 학습 시간 분석
3. 주간학습결과분석: 주간 중 학습 결과, 과목별 예상, 복습 결과 분석 및 확인
4. 주간학습성취분석: 주간 중 학습의 성과를 과목별로 성실도, 정확도, 집중도를 확인
5. 일일학습결과분석: 일일 학습결과, 보충학습이 필요한 주제 확인 및 분석
6. 주간학습계획작성: 과목별로 학습할 범위 지정
7. 월간학습결과분석: 일일, 주간, 월간 학습 결과를 요일별로 확인
8. 주제별원성도분석: 학습한 내용의 문제들 중 학습 역사 및 구체적인 분석 및 확인
9. 부진한문제들분석: 학습한 내용 중 지정된 기준 점수 미달 문제 확인 및 분석
10. 부진한문제들분석: 학습한 내용 중 부진한 문제유형 확인 및 분석
11. 학습환경지정: 과목별 학습 시간, 한 문제 해결 시간, 주단위 예 복습 과목을 지정